

4강.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롯(2:1-4a)

I. 오늘의 포인트

1. 가난한 자들이 추수 밭에서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본다.
2. 롯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이삭줍기 하러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.
3. 롯이 가게 된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, 그날따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타이밍을 생각해 본다.

II. 본 론

A. 이삭줍기의 성경적 배경

1) 이삭줍기와 밭 구석에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

: 떨어진 이삭과 밭 구석에 있는 것을 놔두라는 말씀

‘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,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. 거두어들인 다음에,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.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된다.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 안 된다.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.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’
(레위기 19: 9-10)

‘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러들일 때에는,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, 또 거두어들인 다음에,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.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 두어야 한다.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’
(레위기 23:22)

: 곡식단을 잊어 버리고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놔두라!

‘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, 곡식 한 묶음을 잊어 버리고 왔거든,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 가지 마십시오.....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.....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.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.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.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’(신명기 24:19-22)

: 이웃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먹을 수는 있으나 가져올 수는 없다.

‘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,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됩니다.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

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,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됩니다.’(신명기 23:24-25)

2) 이삭줍기 정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

- : 한 개인이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위한 제도
- :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의 방식
- :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. 이 율법은 이런 올바른 정신 속에서 지켜 나가는 자비로운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심.

3)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

- :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오늘의 위치에 있음을 잊지말라
- : 너의 자비와 은혜 배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비와 은혜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.

4) 이삭줍기를 통한 은혜를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

- : 하루 종일 수고함으로 헛된 자비와 은혜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.

B. 룯이 이삭줍기 하러 나가기까지의 과정

1) 이삭 줍기 전 주인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혜 입음을 기대!

‘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.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,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.’ (룯2:2)

2) 룯의 삶의 두가지 자세

- : 하나님의 법과 전통에 따라 자비를 구하는 마음
- : 본인의 처지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삶의 자세(아침부터.....; 저녁까지.. 7절과 17절)

3) 나오미의 허락과 태도

- : 나오미는 왜 이삭줍기하는 밭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?

C. 인간의 눈에는 ‘우연히도’ vs 하나님의 섭리적 징조

1) 인간의 조작이나 간섭이 아닌 여러 상황들

: 룯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.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보아스의 밭이었다.(룯2:3)

: 그 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.(룯2:4)

: 더 큰 상황속에서 본다면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추수때였다.(룯1:22)

‘.....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.’

- 2)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닌 모습
: 나오미가 어떤 밭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.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.
: 의도적으로 룯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. 그러나 자신의 밭길로 간 것이다
: 하나님은 타이밍을 통하여 섭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신다.
 룯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 하필이면 그 때에 보아스가 밭으로 왔다.
- 3) 우연히도 라고 표현하면서 그 때에 마침 이라고 해설자는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개입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.
- 4)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“만남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종종 진전되어 나감을 본다.
: 룯이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만남
: 룯이 보아스와의 만남
- 5) 하나님의 섭리의 배경을 느끼는 순간에 더욱 확실하게 이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며 읽게 된다.

III. 적 용

1.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삭줍기 제도를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?
2. 이런 제도가 명목상의 말 뿐이 아니라 실제 실현될 수 있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?
3. ‘타이밍’과 ‘만남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?
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과거의 이런 섭리적 역사를 깨달음으로 가져 나가는 안목을 가져나간다면 각자 지금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?